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 : 15

370

2016. 10.30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
는 양이로다

(시편 100:3)

오늘의 주요기사

- 2 해외 파송선교사 초청대회
- 3 영화로 성경읽기
- 4 싯딤나무, 예배다 야외예배
- 5 로템나무, 권사회 야유회
- 6 2016년 향존직 피택자 소개
- 7 목회칼럼
- 8 아가나들이, 수상소식

교회 일정

- 11/6(주일) 성찬주일, 결혼예비학교,
사역박람회(~27)
- 11/14(월) 정기당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깊어가는 가을, 통일의 장마당을 펼치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정신학교 내 주
님의교회 로비와 앞마당,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통일선교 바자
회는 이 땅의 통일과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주
님의교회 온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장이다.

기증품은 지난 3주간에 걸쳐 성도
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동참으로
차고 넘쳤다. 섬김과 나눔에서 속
옷을,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품을
기증했고, 직접 기획한 상품으로
는 김치와 전통장, 과일, 견과와 버
섯 등이 있었다. 외부협력단체로는
탈북민과 관련된 길동무교회, 우리
들학교, 하늘꿈학교가 참여했으며,

그 외 농어촌교회들도 함께 하였
다. 마지막으로 육개장, 만두와 찐
빵, 북한순대 등으로 풍성한 먹거
리가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에게 무
료로 제공하기 위한 솜사탕과 아트
풍선도 준비하였다.

이 행사는 통일선교분과 위원회
에서 주관하지만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의 참여로 가능했다. 바자
회 TF팀 스텝으로 10여 명은 8월 말
부터 매주 모임을 가지며 준비하였
다. 물품 기증을 받는 3주 동안 각
교구에서 70여명이 지원했고, 권사
회에서는 기증품을 미리 분류하고
당일에 각 매대에서 판매하는 일을
도왔다. 여전도회에서는 먹거리 장
터를 담당했고, 안수집사회와 남선
교회에서는 물품 운반과 정리, 주

차 등을 도왔고, 당일 날 남북청년
들도 나와서 필요한 부스에서 활동
을 했다. 봉사자 식사, 솜사탕과 풍
선아트를 섬겨준 성도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무실과 관리집
사들, 여러 간사들의 도움과 수고
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어림잡아
바자회 모든 과정에 총 300명 정도
가 섬겼다.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것은 탈북
민 협력단체들의 참여이다. 올해부
터 관계를 갖게 된 길동무교회에
서는 북한순대와 명태식혜, 북한
약과를 준비하였는데 200인분 정
도가 한두 시간 만에 다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특히 이
번에 수해를 입은 북한 접경 지역에
> 2면에 계속

선교 소식

해외 파송선교사 초청대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10월 1일(토)부터 10월 9일(주일)까지 선교사 초청대회를 가졌다. 이 선교사 대회는 파송선교사들의 지난 사역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선교 방향을 모색하며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그 동안의 선교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이뿐 아니라 그 동안 수고하고 애쓴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주님의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선교사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트남의 최병관 김사랑 선교사 부부, 헝가리의 정재화 정혜영 선교사 부부, 코스타리카의 금상호 김

미경 선교사 부부, 키르기스스탄의 윤영수 김미숙 선교사 부부, 서정운 순회선교사 부부가 참가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설교와 선교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제주도에서는 담임목사와 함께 선교에 관한 워크숍과 간담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담임목사, 당회서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인 시무장로, 은퇴장로, 남녀선교회 회장,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 그리고 해외선교분과를 섬기는 스텝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시간을 가지며 환송만찬으로 진행이 되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함

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 가슴 뭉클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대회에 초청되어 온 선교사들은 이 구동성으로 이번 선교대회가 참 유익했다고 한다. 이러한 교회의 지원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 따뜻하고 극진한 대접에 감동했으며, 새로운 힘이 난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회를 분과스텝들과 준비하면서, 실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고, 성도들이 기대 이상으로 관심과 호평을 해 주어서 분과에 소속된 많은 스텝들은 고무되고 감동을 받았다. 이번 대회가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선교사들의 사역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선교의 목표와 방법 등을 나누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다.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성심 성의껏 열심히 섬기면서 오히려 준비하는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박중순 장로



> 1면에서

길동무교회가 돕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자회 때 남은 옷가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우리들학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주님의교회가 협력하여 돕고 있는 기관이다. 윤동주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탈북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판매하였다. 하늘꿈학교도 바자회에 참여하여 옷가지와 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학교를 홍보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너나들이 모임의 남북청년들도 바자회에 참여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였다. 특별히 바자회 도중에 탈북민 가수로 잘 알려진 김충선 씨가 방문하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다.

바자회 다음날 너나들이 모임에서 청년들에게 바자회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았다. 하나같이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한다. 참여한 탈북단체 분들에게도 이번 바자회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는 더 많은 탈북민 단체들의 참여와 다채로운 방식으로 주님의교회 온 성도가 함께 하는 '통일 대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바자회의 모든 수익금은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선교에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이다.

허준 목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4

判決胸牌(판결흉패)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출애굽기 28장 15-16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判決(판결, judgment)은 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는 일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이다. 법을 지키고 의롭게 재판하는 일은 통치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명 중 하나이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判決胸牌(판결흉패)는 대제사장이

에봇 위 가슴에 매다는 聖衣(성의) 가운데 하나로서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상징한다. 이 흉패는 반 규빗(약 22.8cm)의 장방형 세 마포 두 겹으로 된 주머니인데 겹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있고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임이라는 보석이 들어있다. 이 두 보석이 재판 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니 “판결흉패 : 로 불리게 된 것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判(판단할 판) : 절반 또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半(반 반)에 칼이나 도구. 자른다는 뜻이 있는 刀(칼 도)의 변형체 判(선 칼도 방)을 결합시켜【반쪽씩 칼로 잘라 나뉘듯 시비를 분명히 가려 판단한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決(결단할 결) : 물의 총칭인 水(물 수)의 변형체 決(삼수 변)와 끊다 또는 깨뜨린다는 뜻이 있는 夬(끊을 쾌)의 합자로【범람의 방지를 위해 물길이나 독을 끊기로 결단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胸(가슴 흉) : 몸이나 고기를 상징하는 肉(몸 육, 고기 육)의 변형체 月(육 달 월)에 에워싸다 또는 오랑캐를 뜻하는 冎(에워쌀 흉)을 합쳐【몸에서 중요장기를 에워싼 부위가 가슴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牌(패 패, 신주 패) : 작은 판자 또는 쪽을 뜻하는 片(조각 편)과 낮고 천하다는 뜻을 지닌 卑(낮을 비)를 결합시켜【작은 판자조각에 글을 새겨 눈높이에 맞도록 낮게 매단 것이 명패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줄

섬기는 손 36



봉사의 어떤 모습이든지 무료급식 배식 후, 식사 후, 설거지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은 모습은 봉사자들 마음의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남천경로당 잔반 정리를 하는 섬김의 손입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줄

영화로 성경 읽기

〈매그니피센트 7〉, 서부극에서도 성경을 읽다

오늘날에도 통하는 고전

흔히 ‘고전’을 어려운 책이라고들 알고 있지만, 사실 ‘고전’이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읽어도 재미있기 때문이다. 언제 읽어도 재미있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속내 그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같은 이야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번 반추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에 분명 ‘고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매그니피센트 7〉은 그런 점에서, ‘고전’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명성을 들었을 일본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1954)라는 영화가 있다. 이 감독은 이미 1950년에 〈라쇼몽〉이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같은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는가를 절묘하게 보여주는 이 영화를 혹시 못 보셨다면,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 목록에 넣기를 추천한다).

원작은 일본 명화

〈7인의 사무라이〉는 1586년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일본의 한 가난한 마을을 매년 찾아와서 애써 지은 식량을 약탈해가는 도적떼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지나가던 나이 든 사무라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 사무라이는 떠도는 사무라이 6명을 더 모아 마을 근처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방어 준비를 하고, 마을 주민들을 훈련시킨다. 도적떼들이 다시 쳐들어오자 사무라이들과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대로 싸워서 도적떼들을 전멸시킨다. 이 싸움에서 사무라이 4명도 목숨을 잃는다. 마을이 평온해지자 주민들은 다시 농사일로 돌아가고, 남은 3명의 사무라이도 마을을 떠난다.

이 영화는 전투 전문가들인 사무라이들이 모여서 일을 성공시킨다는 서사 구조,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다는 감동적인 내용을 뛰어난 성격 묘사와 촬영 기술로



영화 ‘매그니피센트 7(2016)’ 중에서

보여주었으며, 높은 작품의 완성도로 1954년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을 받았다. 이 영화를 서부극의 형태로 리메이크한 영화가 존 스테이지스 감독의 〈황야의 7인〉(1960)이다. 올 브리너, 스티브 매크, 찰스 브론슨, 제임스 코번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7인의 사무라이〉를 그대로 서부로 옮겨 만들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The Magnificent Seven”이었으니, 같은 서사를 새롭게 해석해서 만든 앤트완 퓨콰 감독의 〈매그니피센트 7〉(2016)은 원작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 붙인 셈이다.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프랫, 에단 호크와 같은 유명 배우들과 함께, 한국 배우인 이병헌이 캐스팅 되어 화제를 모았다.

서부극으로 리메이크

이 영화는 1879년 평화로운 광산촌 근처 마을이 배경이다. 마을을 썩 값에 매수해서 광산을 확장하려고, 교회에 불을 지르는 등 악행을 일삼는 보그 일당의 무력에 지친 마을 주민들이 치안 유지관인 샘 치죌(덴젤 워싱턴)을 찾아가 복수를 부탁하면서 시작한다. 샘 치죌은 마을을 돌면서 개성이 남다른 싸움꾼들을 섭외해서 〈7인의 사무라이〉와 같이 마을 주민을 훈련시키고, 함정을 파는 등 방어 계획을 마련한다. 이들은 결국 용병을 동원해 쳐들어온 보그 일당을

사투 끝에 전멸시키고, 살아남은 3명만이 마을을 떠난다.

일본 원작을 서부극으로 리메이크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적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도, 이 영화에서 교회 건물은 마을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하지만 목회자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7인에 포함되는 사냥꾼인 잭 혼(벤센트 도노프리오)이 주님을 자주 입에 올리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편 23:4)와 같은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전투를 하는 장면도 나온다.

사회 약자와 소외자의 활약

하지만 좀 더 큰 시야로 볼 때에도 기독교적인 서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곤고한 삶을 사는 마을 사람들이 찾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이다. 샘 치죌은 이들의 눈물에 마음을 돌려, 함께 싸울 동료를 구한다. 그가 모은 사람들은 도박꾼, 사냥꾼, 퇴물 사수, 동양인 칼잡이, 무법자, 인디언 들이다. 마치 예수님이 학자나 바리새인 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삼은 것과 같다. 이들은 다들 과거와 상처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치죌의 설득과 함께 약자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중과부

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흑인인 샘 치죌이 주도하고, 퇴물 백인 뿐 아니라 멕시코인, 동양인, 인디언까지 모두 백인 마을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장면, 그리고 사투 끝에 살아남은 3명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보내는 장면에서 인종적 편견을 넘어선 구원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돌이켜보면, 〈7인의 사무라이〉도 사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몇 명의 구원자들이 목숨을 바쳐 구원하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문화적 토양이 다른 서양에서 서부극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고 또 다시 50년이 지나 리메이크되어 많은 관객에게 관람되는 까닭은 이런 서사가 동서양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주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감동적인 서사의 가장 원형적인 고전이 예수님이 이야기 아니었던가? 그러니 고전 중의 고전, 성경이 재미있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함글함글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6년 발표된 〈매그니피센트 7〉 편입니다.

겨자씨 소식

아름다운마을공동체 방문기

이번 가을에 2교구 성도들은 개신교 공동체로 유명한 ‘아름다운마을공동체’를 방문하였다. 주요 외국의 기독교공동체 혹은 국내 카톨릭공동체의 소식이나 경험만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꿈꾸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이 반가웠다. 9월 3일에는 북한산 근처 수유리에 위치한 도시공동체를, 10월 15일에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농촌공동체를 방문하였다.

아름다운마을공동체는 1991년 6월에 개신교 청년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신앙의 삶을 나누고 신학, 철학, 역사 등을 공부하면서 시작되었다. 공동체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자는 농도상생마을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음식 준비와 나눔도 ‘마을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다.

홍천의 공동체 내에서는 각자 은사에 따라 교사, 생태건축, 음식, 농사를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홍천 공동체에는 생동중학교 16명과 고등학교 통합과정인 삼일학림에는 60여명이 재학 중이다. 이들 대안학교에서는 열람하기(철학+종교+역사), 하늘땅살이(농사), 집짓기(건축), 만들기(생활기술), 고운울림(생활예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여러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특성화 교과로 민요, 태권도, 미술사, 기초집구법, 생화학 등을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따뜻했다. 매일의 삶속에서 말씀과 이웃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현재 서울 인수마을에 150여명, 강원도 홍천마을에 80여명, 횡성·양평·군포에 20여명씩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함줄함울**



사역팀 소식

싹둑나무와 에바다의 야외예배

- 벽초지 수목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장애인사역팀 야외예배를 기획하였다. 장애인사역팀을 섬기는 장로님과 부장님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온전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고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주었다. 많은 시간 함께 모여 준비하였기에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번 야외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장소’였다. 식당을 예약하는 일도, 우리들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화장실을 찾는 일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왜냐하면 모든 장소에서 우리들은 계단과 턱을 만났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라면 너무도 쉽게 지나 다닐 수 있는 자그마한 턱과 계단들이 장애인에게는 높은 절벽과도 같

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날 때, 장애인들은 자신이 잊고 살던 장애를 직면하며 좌절하게 된다.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온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자연 속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무와 꽃과 잔디와 구름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그들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있었다. 그 조화로움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생각했고, 감사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각자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조화가 있는 곳일 테니 말이다.

송비율 전도사



선거 소식

2016 항존직 선거 결과 발표

2016년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가 무사히 마치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결과는 10월12일 최종 발표 되었지만, 선거가 있기까지 선거 공고문 게시 준비, 선거인 명부 등의 수많은 작업으로, 5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주님의교회 중요

한 사역이다. 위원장 장로님과 네분의 위원 장로님, 팀장 팀원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위해, 기간 내 기도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장로1명, 안수집사16명, 권사19명, 중직자 추천투표, 당회 공천투표, 그리고 1,2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의 과정을 통해 피택되었다.

1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는 1151명이 투표해 서, 장로0명(유효표 1136의 2/3이상 득표자), 안수집사10명(유효표 1110의 1/2이상 득표자), 권사12명(유효표 1133의 1/2이상 득표자)이 피택 되었으며, 2차 항존직 공동의회 선거에서는 1052명이 투표해 주셔서 장로1명(유효표 1041의 2/3이상 득표

자), 안수집사 6명(유효표 980의 1/2 이상 득표자). 권사 7명(유효표 1012의 1/2이상 득표자)이 피택 되었습니다. 피택자들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의 열심과 충성을, 성도들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소망한다.

2016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

로템나무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언급되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맺고 싶어 하는 열매입니다. 제게 가장 부족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원뜻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난폭한 맹수가 주인에게 길들여져 유순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고 린도전서 13장에 쓰인 사랑의 정의

를 온유와 바뀌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걸 보면 온유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드신 노부부가 지하철을 탔는데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가 소리를 높여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할머니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니 이어폰을 꽂고 들으라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말 들을게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아이들 결혼시킬 나이가 되니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삶의 속도도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고 말릴 때, 손수건이 없으면 옷에 쓱쓱 문지르거나 장풍이라는 기계에 손 밀어 넣은 후 후다닥 말리거나 했지 약한 바람이 나오는 핸드드라이어는 속이 타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이 걸려도 여유롭게 핸드 드라이어에 손을 말립니다. 그렇게 느긋해진 내가 좋습니다. 비록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온유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내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아내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진심을 담아 이렇게 대답해야겠습니다. "당신말 들을게요"

염인호 집사

가을 나들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 권사회 야유회

해마다 가을이면 권사회에서는 가을 소풍길을 나서곤 하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잠시 뒤로하고 가을 풍경으로 작은 여행을 떠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 위함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자식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한평생, 그래서 더 풍성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가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의 아내, 자식의 엄마, 교회의 권사 아닌 내가 듣고 싶은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기로 하였습니다. '짱아, 미인, 마당발, 대왕님, 용사, 우주공간, 뽀빠이' 등 학창 시절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불렀던 별명들이 생각나기도하고, 그저 내 이름 그 대로를 듣고 싶어 이름표에 정성스럽게 적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권사의 직분으로 섬기며 항상 누군가를 대접했지만 오늘만큼은 주님께 대접을 받으며, 또한 서로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귀함을 발견하는 감사한 시간... 잣으로 유명한 가평인지라 잣공장에 들러 그저 구경만 할 계획이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잣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어머님들은 좋은 음식을 보기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듯 하였으나 돌연 공원 입구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

졌습니다. 65세 이상은 연장자로 무료 혜택, 65세 미만은 '청년부'. 그러나

산길에 오르는 순간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우리 모두를 산타기의 명수



들로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산 정상에는 뽕족한 봉우리가 아닌 고요한 호수가 놓여있었습니다. 호수는 누가 와서 봐주지 않아도 하늘의 그분께서 아시면 괜찮다는 듯 고요히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탐스럽게 열매 맺은 잣 한 알갱이와 누군가의 시선과 관계없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하늘을 관상하는 산 위의 호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웃는 눈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래서 서로를,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로구나' 깨달으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소박한 가을 여행은 저물었고, 어느새 버스는 우리를 아시아 공원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집처럼 드나들던 익숙한 주님의교회가 새롭고도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오후, 다시금 부지런히 통일 바자회를 준비하며 종횡무진 교회를 누비는 당신의 이름은 바로 '주님의교회 권사회', 우리들의 어머님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재상 목사

2016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2016년 10월 2일의 1차 선거와 9일의 2차 선거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장로 1명, 안수집사 16명, 권사 19명이 피택되었습니다. 피택자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내년도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여러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가나다 순)

■ 장로



김익훈

■ 안수집사



강대수



고광중



구태호



김영화



김용철



김종식



박남현



박종욱



박형규



서용석



송수학



이성규



장근열



최봉수



한승수



한재희

■ 권사



강기선



김애리



김영주



김점심



박경희



박동선



배정선



서옥숙



설정희



소봉순



양정순



오현옥



유경희



이혜성



전영오



정란희



정선화



최성이



한경숙

목회칼럼

일상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가 아니라도 괜찮은 시대

‘Real’ 이 단어의 발음은 리얼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생긴 발음이 있는데[레알] 입니다. 이 말은 리얼(real)을 발음기호 식으로 그냥 읽은 말입니다. ‘리얼’을 ‘레알’로 발음해도 요즘의 아이들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실제 발음은 무엇 일까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바나나 우유와 직접 바나나와 우유로 만든 바나나 우유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제 일까요? 바나나 우유는 신기하게도 바나나 보다 더욱 더 바나나 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vs, 세상의 일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실제인지 혼동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실재마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일과 일상의 일이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보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텔레비전보고 음악을 듣는 것은 그냥 세속의 일이라고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상의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해서는 안 되는 속된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일은 삶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는, 우리의 실제의 삶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음식을,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일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꼭 교회의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에 냉소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렇다 해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웅 목사

교단소식

하나님 중심의 말씀교육으로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정통합 기관지인 기독교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제48차 기독교교육주간(10월 16~22일)을 맞아 총회 교육자원은 2017년 교육정책 TIP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2017년 총회 주제 ‘다시 거룩한 교회로’에 따른 연간 계획과 교육주제해설, 교육목회 심

포지엄, 스페셜 교육목회 파노라마 순으로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서 증경총회장인 정영택 목사는 “다음세대를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한정짓지 말고 모든 세대가 세대를 책임지는 의식을 갖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거룩한 교회는 결국 거룩한 교인이 되어야만 가능하

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보다는 먼저 거룩한 교인이 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교육 중심으로 목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장순애 영남신학대 교수는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복 받았던 야곱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글함글**

정신학원에 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7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5)

정신여학교 지정승격



1935년 을밀대 수학여행

1933년 6월 루이스 교장 집에서 정신여학교 후원회 발기총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7시 30분. 연지동 루이스 교장 집에서 후원회 발기 총

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윤치소(尹致昭), 김성수(金性洙), 송진우(宋鎭禹), 조만식(曹晩植), 여운형(呂運亨), 백낙준

(白樂濬), 함태영(咸台永), 예비슨, 쿤스, 유각경(兪玉卿), 방신영(方信榮), 신의경(辛義卿) 등 이었다. 후원회는 재단법인 설립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1934년 3월 졸업을 앞 둔 졸업생들은 지정학교 승격을 위한 자격검정시험을 보았지만 일제는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때 졸업생은 18명으로 이미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된 학교들에 비해 졸업생수가 적었다. (이화 59명, 배화 34명, 숙명 76명, 진명 71명, 경성 94명)

1935년 5월 9일 마침내 정신여학교가 지정학교로 인가되어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음해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전문학교 검정규정에 의

한 지정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6월 21일 연동교회(蓮洞教會)에서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지정축하회(指定祝賀會)가 열렸다.

연동교회 함태영(咸台永)씨 사회로 유각경(劉玉卿)씨의 동교 연혁보고(沿革報告)가 있고, 쿤스씨의 축사가 있었고, 1903년부터 동교한문교사로 근무해 온 윤성순(尹城淳)씨의 감사의 답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 해의 12월, 총독부는 기독교 선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희천 정신여학교 교장

아기나들이



유하진 아기

2016년 4월 28일생

1.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길
2. 항상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도록
3. 하진이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즐겁고 행복하도록

아빠 유혁준 / 엄마 원슬기, 2016년 10월 16일 4부 예배



이정현 아기

2016년 7월 20일생

1. 삶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길
2.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정현이가 되길
3.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길

아빠 이호준 / 엄마 탁희정, 2016년 10월 9일 2부 예배



유지원 아기

2016년 7월 19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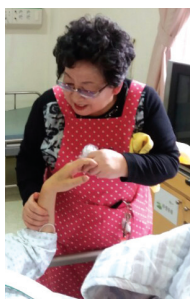
1.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주안에서 기쁨 누리며 살도록
2. 부모에게 사랑을, 형과 우애를 나누게 하소서
3. 건강하고 밝은, 꿈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주안에서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소서

아빠 유준상 / 엄마 김윤희, 2016년 10월 9일 3부 예배

수상 소식

김양자 은퇴장로 유재라상 수상

김양자 은퇴 장로는 10월 19일 제 25회 유재라 봉사상 복지부문(호스피스 봉사) 수상 하였다. 1995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해 탁월한 관리자 겸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호스피스 저변 확대에 힘써왔으며, 많은 가정의 환우들에게 정성을 다한 가정 호스피스봉사와, 재능나눔 활동과 가정의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병원 봉사 등 가족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유재라 봉사상은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딸로, 평생을 사회 봉사에 헌신했고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헌납한 유재라 여사를 기념하기 위해 1992년 제정한 상이다. **함줄함울**



교회단신

나눔 참여 캠페인 경과보고

주님의교회는 지난 8월말 송파구청으로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약 2주간에 걸쳐 성도들로부터 모금으로 15 박스의 물품과 2리터 세제 6개들이 36상자, (사)섬김과나눔에서 라면 40개들이 54상자를 기부 받아 송파 푸드 마켓을 통해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하였다. **복지위원회**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행사

2016 사역박람회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체의 각 부분이라 _ 고전 13:27

▶일시 : 2016.11.6~27(매 주일) 8:30~2:00 ▶장소 : 1층 로비

	봉사분과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서점, 도서실, 환경미화, 결혼예식
	복지분과	구제, 복지, 호스피스, 환경사역, 장애인사역, 사랑나무
11월 6일	섬김과나눔	늘푸른대학, 무료급식, 죽배달, 특별구제
	문화스포츠포럼	미술(11/8일만), 문화스포츠포럼, 성극
	예배분과	중보기도부
	어린이분과	어린이분과(아기/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
	국내선교	동부선교, 서부선교, 기관선교, 법조선교, 의료선교, 이미용선교, 군경선교, 외국인선교
	통일선교	하나원사역, 북한이탈주민사역
11월 20일	해외선교	선교사중보, 비전트립, 중앙아시아, 미주유럽, 아프리카
	청소년사역원	반가운학교, 학원선교
	국제교육선교센터	교육선교, 예수친구사역, 12단계성경연구
	상례위원회	상례 / 조가대
	청소년분과	청소년분과(중,고등부)
	예배분과	예배1,2부, 안내1,2부, 새벽기도, 통역
	음악분과	찬양대(1,2,3,4부),주오오케스트라,미시오데이, 할렐루야찬양팀
	소그룹분과	운영팀, 은사사역
11월 27일	젊은이분과	젊은이 10교구 사역
	양육분과	새가족, 가정사역, 양육클래스
	미디어분과	함줄함울, IT홈페이지, 출판홍보
	EM분과	EM, 어린이영어예배, 토요한국어교실
	청소년분과	청소년분과(중,고등부)

알립니다

1.교구별 금요기도회: 11/4(금) 오후 8:00

1교구(지하 중예배실) 2교구(1층 제3집회실)
7교구(3층 초등부실) 9교구(3층 소년부실)
10교구(1층 자모실 11/3(목) 오전10:30)

2.2017 청소년 신입 교사대학(교사 양성과정)모집

등록 기간 : 오늘(10/30)
접수 : 교회 로비, 4층 청소년 교육 목회원실
대상 :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
교육 일정 : 11/6~27(매 주일) 오후1:30~3:30
문의 : 이준엽 목사(010.7736.0662)

3.사역박람회

내용 : 교회 내 사역팀 소개 및 내년 사역 신청
기간 : 11월 4주간(분과별)
문의 : 변준석 안수집사(010.7722.6780)

4.제15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11/6,13,20 매주일 오후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교역자실(4층)
문의 : 문화삼 목사(010.4305.1849)

5.호산나, 시온 찬양대 지휘자 초빙

자세한 내용(자격,조건,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김대환목사(010.2910.3559)

6.담임목사 동정

미래 목회 세미나 10/31(월)~11/11(금) 뉴질랜드